

## 국제 ODA 동향

(2007. 7)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 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 ODA 토픽

[Page]

- [아시아개발은행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시사점](#) [2]
  - ◆ 최근 ADB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원조 지원을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
- [중앙아시아·카스피 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추진방향](#) [12]
  - ◆ 중앙아시아·카스피 해 지역의 정치,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별 개발협력 추진방향을 모색

### ODA 단신

- [AfDB '제42차 연차총회' 주요 내용](#) [25]
  - ◆ 2007년 5월 개최된 AfDB의 제42차 연차총회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29]
  - ◆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측면의 고려요인을 논의하기 위해 2007년 5월 개최된 국제 공동세미나의 주요 내용
- [세계은행이 발간한 GDF 2007의 주요 내용](#) [32]
  - ◆ 2007년 5월 발간된 Global Development Finance의 주요 내용 정리

### ODA 자료

- [세계은행 및 OECD의 2007년도 국가분류 현황](#) [37]
  - ◆ 2007년 7월부터 적용되는 세계은행 및 OECD의 국가분류 현황
- [아시아개발은행의 2006년도 업무실적](#) [42]
  - ◆ 2007년 5월에 발표된 아시아개발은행의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 정리

### EDCF 소식

- [2007년 2/4분기 EDCF 소식](#) [45]
  - ◆ 2007년 2/4분기 EDCF 주요 사업개요 및 2007년 6월 말 현재 EDCF 업무통계

ODA 토포 1

## 아시아개발은행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시사점

### 【요약】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관련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시장과 탄소펀드가 증가하였음
- ADB는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발맞추어 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환경 프로그램'과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프로그램'을 실시 중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제2차 의무이행기간에 감축의무국이 될 확률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구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상황

### I.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의 움직임

-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UNFCCC)' 채택
  -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부속서 1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38개 국가를 지정)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음
-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7년 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제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동안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기후변화협약'상 감축의무가 있는 38개국 중 미국과 호주의 비준 거부로 감축의무 국가는 36개국으로 감소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배출권 획득 및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하였으며, 교토 메커니즘은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의 세 요소로 이루어짐
  - 배출권 거래(ET : Emission Trading) : 각 국가별로 일정한 배출량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고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동이행(JI : Joint Implementation) : 감축의무국이 다른 감축의무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 분을 투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감축의무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감축 분을 투자국의 실적으로 인정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주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참여 압력이 증가될 전망이며 감축의무 강제이행을 위한 구체적 제재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국이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년)동안 감축의무국에 참여하도록 강하게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
  - 감축의무 강제이행을 위해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세금, 관세, 비관세장벽 등 경제적 수단들로 경제협약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전망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교토 메커니즘)에 대한 대응으로 **배출권 거래시장 및 탄소펀드 증가**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기술개발, 저공해에너지 사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한편,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배출권 거래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감축의무국들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
    - 교토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미국, 호주도 독자적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발히 운용중임

- 배출권 거래시장은 크게 감축 의무국간 사전에 배분된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허용량 거래시장(EU ETS : EU Emission Trading Scheme)'과 JI, CDM 사업을 기반으로 발생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프로젝트 거래시장'으로 구분
  - 배출권의 가격은 각국의 정책 변화, 에너지 가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움직이며, 초기 예상보다 변동 폭이 크게 움직임
- 또한, JI, CDM 사업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탄소펀드도 탄생
  - 초기에는 CDM 사업의 활성화 및 민간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부나 국제기구 주도로 생겨났으나, 최근에는 민간부문의 독자적인 펀드도 증가

## II. 기후변화 관련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정책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발맞추어 **ADB는 아시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환경 프로그램'과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을 실시**
- ADB는 청정·재생·고효율 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기후변화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기존 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2000'을 수정하여 에너지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ADB의 에너지 분야 정책은 동 전략에 따라 수행될 예정
- **청정에너지환경 프로그램(CEEP : Clean Energy and Environment Program)**은 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와 탄소시장 이니셔티브로 구성
  - 에너지효율 이니셔티브(EEI : Energy Efficiency Initiative) :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연간 10억 달러를 동 프로젝트들에 투자
  - 탄소시장 이니셔티브(CMI : Carbon Market Initiative) : 개발도상회원국의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REACH :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and Climate Change)**은 재생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효율성 증진의 장애요소를 파악·해결하고, 개발도상회원국 정부의 역량강화 지원

## 1. 에너지 전략(Energy Strategy)<sup>1)</sup>

- 에너지 전략은 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도상회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며, ② 농촌 지역 등 소외되는 곳 없이 모두가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③ 개발도상회원국 정부의 지배구조(Governance) 및 역량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수립됨

### 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의 에너지 수요 충족

- 에너지 효율성 증진 및 재생 에너지 사용 도모를 위해 2005년 시작된 CEEP 프로그램을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부문 지원 확대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 적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유도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는 항상 같이 다뤄지는 주제임
  - ADB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도상회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너지 수요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시멘트, 철강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특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를 위해 2005년에 시작된 '청정에너지환경(CEEP) 프로그램'을 산업협회, 현지 은행, 에너지 효율 에이전시, 에너지 서비스 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입찰서류 준비, 재정 및 보증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개발도상회원국이 고효율 에너지 장비 및 제품을 사용하고 만들도록 요구하는 규정과 기준 제정을 지원할 예정임
- 개발도상회원국의 기존 발전소 효율성 증대 및 청정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주력할 예정

1) 현재 에너지 전략(안)이 수립되어 60일간 대중 앞 공개되어 의견을 수렴하는 공공 자문(consultation)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자문내용 반영 후 ADB 내 최종승인을 받게 됨

- ADB는 개발도상회원국의 발전 수요를 측정하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부문계획을 작성, 이를 근거로 에너지 부문 로드맵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발전 부문에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예정
- 발전소 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성 증대가 요구되는 기존 발전소의 개선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원하되, 풍력·태양력·광·소형수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부문을 동시에 지원 할 예정
  - 발전소 투자와 더불어 전송과 분배 설비에 큰 투자가 필요하므로 현대식 전송, 분배 시스템의 설치 및 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지원
  - 핵 확산 위험, 환경 위험 등을 감안하여 원자력 부문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 고수

#### 나. 에너지 접근가능성 증대(Energy for all)

- 에너지에 접근하지 못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파악하고 농촌전력화 계획을 지원하며, 주요 에너지부문 프로젝트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
- 주요 에너지부문 프로젝트에 약 5백만~10백만 달러 규모의 시범사업을 '에너지 접근가능성 증대 요소'로 추가하여 에너지 접근성을 증대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전력화 비율이 70% 이내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 할 예정

#### 다. 에너지 부문 개혁 및 구조조정

- 발전 분야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원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에너지부문 개혁 및 구조조정 등 지원 예정
- 개혁과 구조조정의 적용에 덧붙여, 경쟁적 에너지 시장 형성을 위한 연구·조사, 법률제정, 기술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

## 2. 청정에너지환경 프로그램



## 가.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EEI)

- ADB는 개발도상회원국 에너지 패턴을 저탄소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2005년 7월 29일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였으며, 매년 1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할 것을 계획
- EEI 프로젝트는 기본 틀을 설계하는 1단계, 국가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2단계, 각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3단계로 이루어짐
  - EEI 1단계\*(2006년 6월 완성) :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근거 및 다음 단계 실시를 위한 우선순위와 기본 틀 제시  
\* EEI 1단계 보고서 요약(붙임 참조)
  - EEI 2단계(2006년 6월~2007년 12월) : 국가별 프로젝트 및 활동계획을 준비, 2008~2010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여 '청정에너지지원 파트너십 펀드'의 설계·설치를 통한 에너지 효율 투자기회 발굴
  - EEI 3단계(2007년 말~2010년 말) : 에너지효율 프로젝트 및 활동계획 실행,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실시, '청정에너지지원 파트너십 펀드' 사용

## 나. 탄소시장 이니셔티브(CMI)

- CMI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개발목표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조명하며,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
  - CMI는 프로젝트의 협조유자 자금, carbon credit 마케팅 프로그램, CDM 가능 프로젝트의 시작 및 실행 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청정 에너지 개발 초기투자자금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시장에는 수많은 공공 및 민간 탄소구매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금의 지급은 프로젝트 종료 시 또는 carbon credit 발행 후 이루어지므로 많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들의 초기투자자금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CMI 관련 Asia Pacific Carbon Fund, Technical Support Facility 등과 같은 자금의 이용 가능

### 3.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및 기후변화 프로그램(REACH)

- REACH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성 증진에 있어 장애요소를 파악·해결하며, 개발도상회원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
- ADB의 기후변화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역량강화 활동 및 청정개발체제(CDM)를 포함하며, 클린 에너지, 에너지 효율, 탄소 배출량 감축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동 이니셔티브는 에너지 부문의 활동이 지역 및 세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ADB의 에너지 정책(에너지 2000)의 일부로 실시되었으며, 2001년 REACH 프로그램 착수를 위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정부가 출연한 신탁기금을 한데 모음

### III. 시사점

-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국인 OECD 회원국이므로 제2차 의무이행기간(2013~2017)동안 감축의무국으로 참여하도록 강하게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구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상황임
- 우리나라도 확산 가능한 재생에너지 사업에의 연구투자를 통해 대체에너지 상품 개발 등 동 시장에 진입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이 수소연료전지 강국이고, 일본이 세계 태양광 생산 1위국이며, 독일, 덴마크, 스페인이 풍력발전 강국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청정에너지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도 청정 상품개발을 통해 2006년 225억 유로, 16억 톤의 탄소가 거래되는 세계시장에 진입하여 이를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 EDCF도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여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도울 수 있음
- ADB 등 MDB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으로 인정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동 사업 앞 진출도 적극 후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ADB에서도 에너지 효율 이니셔티브(EEI) 관련 매년 10억 달러의 프로젝트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의 참여기회는 매우 많으며,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연구 초기단계에서는 ADB의 신탁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붙임 : EEI 1단계 보고서 요약

- 자 료 : 1.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교수, '기후변화 협약과 탄소펀드'  
2. <http://www.adb.org/Environment/world-environment-day-2007.asp>  
3. <http://www.adb.org/clean-energy/strategy.asp>  
4. <http://www.adb.org/Clean-Energy/default.asp>

작 성 : 조 윤 경, [ykjo@koreaexim.go.kr](mailto:ykjo@koreaexim.go.kr)

(붙임)

## EEI 1단계 보고서 요약

-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근거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본 인프라 투자도 크게 필요한 실정
  - 에너지 효율 투자란 고효율 에너지 장비 및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 감소 및 온실가스배출 감소 실현가능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 세계 1차 에너지 사용률은 1973년 13%에서 2003년 25%로 증가되었음
    - 1973년에서 2003년까지 세계 에너지 사용량이 75% 증가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은 230% 증가
    - 세계의 에너지 사용량은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 아시아·태평양은 이중 30%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73년 세계 배출량의 8.7%에서 2003년 24.4% 로 증가하였으며, 2030년 세계 배출량의 30.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화석연료에의 의존성이 높고 최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데 기인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차 에너지 공급(Total Primary Energy Supply)은 주로 화석연료로부터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는 석탄 41%, 석유 25%, 천연가스 7%임
    - 아시아·태평양의 에너지 소비증가의 주된 요인은 제조업의 성장과 농촌의 도시 이주임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세계는 2030년까지 16조 달러의 에너지 자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2030년 세계 에너지의 3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5조 달러의 투자 필요

- ADB 중기 전략II(2006-2008)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이 저탄소 기술을 획득하고,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
- ADB는 2008년까지 에너지 효율 투자 규모를 매년 10억 달러씩 늘릴 예정
  - 무상 에너지효율 프로젝트는 에너지 효율을 위한 세금감면 등 시장기반 인센티브를 구축하며 사후관리, 평가 등을 지원
  - 유상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는 공급 및 수요 측면의 효율성 제고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
    - 공급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의 예로 에너지 변환절차 개선, 첨단 발전 기술의 적용 및 고효율 장치 적용, 전송 및 분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손실을 최소화 등이 있음
    - 수요측면의 효율성 제고는 상업, 산업, 정부, 농업, 주거, 교통 등 모든 분야에 필수적이며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서는 20~40%의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재생에너지 부문은 태양력, 풍력, 소규모 수력 플랜트,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등을 포함
  - 현재 에너지 소비의 15%가 절약되고, 에너지 공급의 4%가 재생 에너지로 대체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개발도상회원국의 에너지효율 시장의 규모는 매년 240억 달러 이상임
  - 이에 따라, EEI 1단계 보고서에는 2008년까지 ADB의 에너지 효율 투자 규모를 매년 10억 달러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음

목차보기

## ODA 토픽 2

# 중앙아시아 · 카스피 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추진방향

### 【요약】

- 중앙아시아 · 카스피 해 지역은 부존자원의 보고로서 최근 지정학적 · 경제적 중요성이 커져 주요 강대국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음
- 동 지역은 고성장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와는 보완적 경제구조로 경제협력 잠재력이 크므로,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조속한 경제협력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경험 전수를 위한 지식공유 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고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총 15개국으로 구성된 CIS 국가에서 EU 회원국인 발트 3국, World Bank의 Soft ban 국가, 외채문제 등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 카스피 해 연안의 4개국을 분석대상국으로 함

## I. 중앙아시아 · 카스피 해 지역의 정치 · 경제 개황

### □ 최근 경제적 ·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강대국들의 치열한 각축장화

-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유혈사태로 인한 동국의 친러 · 친중 정책 추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탈 미국화 등으로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되었던 미국이 최근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정치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해짐
- 특히, 이 지역은 러시아, 중국, 터키, 이란 등 중동지역 및 인도 등과 접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 경제적으로도 중앙아시아 · 카스피 해 지역<sup>2)</sup>은 중동에 이은 제2의 에너지 자원 보고로서 주요 강대국들의 에너지자원 확보경쟁이 치열<sup>3)</sup>해지고 있음

2)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에너지자원 매장지(석유 2,500억~3,000억 배럴, 천연가스 15조~20조 입방미터)로 미국 내 유전(220억 배럴) 및 북해 유전(130억~170억 배럴) 규모를 능가

## 중앙아시아·카스피 해 지역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추이

(단위 : 억 m<sup>3</sup>)

매장량	국 가	확인매장량	잠재매장량	가능매장량	비 고 <sup>주)</sup>
	아제르바이잔	8,498	9,915	18,413	
카자흐스탄	18,413	24,929	43,342		
투르크메니스탄	20,113	45,042	65,155		
우즈베키스탄	18,753	9,915	28,611		
합 계	65,722	92,917	158,640		
생산량	국 가	연도별 생산량			
		1992	2000	2005	2010
량	아제르바이잔	79	56	50	198
	카자흐스탄	82	88	238	351
	투르크메니스탄	572	535	589	991
	우즈베키스탄	428	563	558	906
	합 계	1,161	1,244	1,436	2,447

주: 2005년 BP 통계연감 인용.

자료 : EIA, Caspian Sea Region: Survey of Key Oil & Gas Statistics and Forecasts. 2006. 6

## II. 국가별 경제개발동향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진행정도에 따라 각 국의 경제개발수준은 다르나 국민기초보전 및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발전이 더딘 모습을 나타냄

### 1. 카자흐스탄

- 현재 세계 56위인 경쟁력 순위를 중기적으로 50위로 상향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부패 척결, 공정경쟁 환경 조성, 외국인 교역, 투자 개방 등에 주력

3) 특히, 전략적으로 미국의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석유·가스 운송 파이프라인 확보여부가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바, 2006년 수송용량 100만 b/d의 최초 러시아 우회 수송로인 BTC 송유관 개통에 이어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송유관, 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 가스관 연결이 각각 추진 중임

- 2003~2015 산업·혁신 개발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대비한 경제구조 다각화 및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음
- 2004~2015 국가 환경개선 실천전략에서는 아랄 해 및 Semipalatinsk 핵 실험지역의 환경보호와 東카자흐스탄, Pavlodar, Karaganda주 등지의 사막화 및 토지침하 방지·조림사업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점 개발분야 >

- 제조업 경쟁력 강화 : 협소한 내수, 고물류비용, 기업투명성 저위 등이 선결 과제, 통신·자원·농업관련 산업·방송 산업 등 개발 중점
- 공공 인프라 확충 : 도로·철도·공항·항만·발전 등 인프라 확충 역점, 아스타나 등지의 폐수관리·난방·운송 등도 수요에 미달
- 환경 : 유전·핵실험지역 등 환경오염·폐기물 문제 선결 시급

## 2. 우즈베키스탄

- 새천년개발목표에 따라 빈곤축소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경제성장 및 개혁 추진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목표로 교육·통신·보건 분야 등에 집중투자

< 중점 개발분야 >

- 국민복지 증진 : 2005년 중기 국민복지 증진계획 마련 및 추진
  - 중점추진목표 : 교육·보건부문 공공지출 확대, 지역균형발전 도모
  - 세부추진목표 : 절대빈곤 인구비율 20.0%, 8.0~8.5% 경제성장 달성
- 교육서비스 향상 : 교육예산편성 2003년 38%로 증가, 개발계획 추진
- 통신 인프라 확충 : 1995~2010년 통신망 현대화계획 3단계 진행 중
  - 무선통신분야의 발전 등으로 전화보급 및 무선가입자 확대 추진
- 전력 확충 : '2001~2010년 에너지생산능력 재건개발계획' 추진 → 10억 달러 투자 전력설비 15% 확대, 발전소 현대화·증설 등 추진



### 3. 아제르바이잔

- 막대한 석유 수출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복지증진을 경제개발정책의 근간으로 함

#### < 중점 개발분야 >

- 비석유 민간부문 개발 : 농업 및 농업가공업 · 제조업 · 운송 · 통신 부문 투자유망, 장비 · 기계류 · 운송 · 자원 관련 산업 등에 성장잠재력 지남
- 전기 · 가스 공급망 확충 : 에너지공급 불확실로 매출손실 막대
- 교육서비스 향상 : 교육부문 재정투입 증가세 → 전체 예산의 17.8%를 교육 예산에 배정, 국제수준의 고등교육 및 재교육 등 추진
- 보건서비스 증진 : 보건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이 낮아 유아, 어린이, 산모 사망률이 높음

### 4. 투르크메니스탄

- 니야조프 前정권의 경제개발 실패로 사회복지 및 경제 인프라가 미비하나, 무하메도프 新 정권의 개방정책 추진으로 경제 · 사회발전 기대

#### < 중점 개발분야 >

- 교육 : 前 정권의 비정상적 교육정책으로 교육인프라 크게 악화
- 보건 : 의료인력 양성부족, 기술낙후와 마약거래 등으로 심각
- 운송 인프라 : 도로 · 철도, 공항 · 항만, 운송파이프라인 등 부족 심각
- 통신 : 2005년 유선전화보급률 8%로 인프라가 극히 미비
- 환경 : 아랄 해 수자원 고갈로 주변지역 용수 · 질병문제 등 야기

## Ⅲ. 개발협력 추진방향

### 1. 경제협력 가능성

- 이들 4개국은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 석유 · 가스 등 풍부한 부존자원, 5,400만 명의 인구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큼

- 카자흐스탄<sup>4)</sup>은 1991년 독립 이후 자원시장을 적극 개방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sup>5)</sup>은 최근 20~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우즈베키스탄<sup>6)</sup>도 최근 외국인 참여를 통한 자원개발을 확대 추진 중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개방여부에 관심 집중

#### 4개국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명, 백만 달러)

구 분	1인당 GNI(2005, 달러)	인구	GNI (2005, 달러)	한국과의 교역 (2006)	한국의 무역흑자 (2006)	한국의 투자 (2007.3)	EDCF 지원
카자흐스탄	2,930 (LMIC <sup>주1)</sup> )	15	50,909	600	48	523	20
아제르바이잔	1,240 (LMIC)	8	10,964	47	47	5	-
우즈베키스탄	510 (LIC <sup>주2)</sup> )	26	13,606	689	609	435	77
투르크메니스탄	1,430 (LMIC)	5	6,069 <sup>주3)</sup>	8	4	-	-

주 : 1)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per capita income 876~3,465달러

2)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income 875달러 이하

3) 2004년 수치임

자료 : OECD, EIU, KOTIS

- 우리나라는 2005년, 2006년 한·우즈베키스탄, 2006년, 2007년 한·아제르바이잔 정상외교를 통해 외교·경제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 아랄 해 가스전 5개국<sup>7)</sup>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석유·가스전 개발과 금·우라늄 등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 중
- 이 지역 국가들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소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30만~4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이 큼

4) 천연가스(세계 8위), 원유(세계 8위), 비철금속(90종 발견, 60종 개발 중)

5) 원유(세계 9위), 비철금속(아연 2억 톤 매장추정)

6) 천연가스(세계 7위), 면화(생산량 세계 4위)

7) 한국, 러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 2. 국가별 개발협력 추진방향

### 가. 카자흐스탄

#### (1) 개요

- 석유 수출을 통한 자본축적으로 수원의지가 극히 미약하여 지원 여지는 크지 않음
- ODA 수원현황 : 2003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소득 증가\*로 국제사회의 ODA 지원순위도 크게 낮아짐
  - \* 1인당 GNI : 1,350달러('01) → 2,300달러('04) → 2,930달러('05) → 4,000달러('06 예상)
  - 일본은 최대 원조국(국제원조액의 20%)으로서 인적자원·운송시스템 개발, 수자원 관리·공급, 병원 건립 부문에 주로 지원
  - EBRD는 도로·철도, 공항·항만 등 인프라 건설사업 적극 지원
  - 우리나라는 1996년 유일하게 총사업비 3,400만 달러 규모의 통신망현대화 사업에 EDCF 자금 2,000만 달러 지원

#### 카자흐스탄의 ODA 수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양자간 (무상)	143.9 (98.8)	228.0 (82.5)	203.3 (92.5)	153.3 (92.3)
다자간 (무상)	18.4 (13.5)	15.3 (14.6)	21.7 (21.1)	21.4 (21.3)
합 계 (무상)	188.2 (123.3)	270.0 (107.8)	267.7 (147.3)	229.2 (166.1)

자료 : OECD DAC,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 2001-2005, 2007(총 수취액 기준)

#### (2) 개발협력 추진방향

- 타이드 유상원조의 가능성이 낮아, 언타이드 방식을 통한 MDB와의 협조유자 추진 모색

- 국민소득 수준, 대외원조 수원방침 등을 감안하여 MDB와의 협조유자를 추진하되, 필요시 언타이드 방식 접근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KSP(지식공유사업)는 WTO 가입, 성과 및 문제점, 산업다각화 정책, 지역균형발전과 인력개발정책, 금융제도 효율화 부문 지원 가능

## 나. 우즈베키스탄

### (1) 개요

- 석유·가스, 광물자원 등 부존자원 풍부, 26백만 명의 인구 보유 등으로 경제협력 잠재력이 크며, 20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해외동포 복지증진에도 간접적으로 기여
- ODA 수원현황 : 2002~2005년 연평균 2억 달러 규모의 ODA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양자간원조가 81.2% 차지하였고, 국별로는 일본이 연평균 6,400만 달러(전체의 39.6%)로 최대 지원
  - 미국은 2005년 5월 안디잔 폭동사태를 계기로 지원 크게 축소
  - 우리나라는 통신망현대화사업 등 2개의 EDCF 사업을 지원하여 종료하였고, 현재는 직업교육개발사업과 교육정보화사업 등 2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우즈베키스탄의 ODA 수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양자간 (무상)	152.9 (112.5)	167.5 (115.7)	205.8 (117.7)	124.1 (92.2)
다자간 (무상)	20.7 (13.9)	16.7 (13.2)	25.0 (13.2)	31.5 (24.4)
합 계 (무상)	189.4 (136.6)	194.4 (138.9)	245.6 (145.5)	172.3 (128.3)

자료 : OECD DAC,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 2001-2005, 2007(총 수취액 기준)

## (2) 개발협력 추진방향

-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부문과 정부의 중점지원분야를 지원하여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극대화.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원조방침을 감안할 때, 타이드 방식의 접근이 타당해 보임
- **교육 분야** : 1991년 독립 이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가장 중점적 투자분야이며, 총 EDCF 지원 사업 4건 중 3건이 이 분야임. 보다 선진화된 직업교육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후 우즈베키스탄 정부 앞으로 이전하는 방식도 검토 가능
  - EDCF 지원 사업은 직업교육 시설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교육정보화사업은 교육·IT 접목 사업으로 교육정보화 및 우리나라의 IT기술 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건·의료분야** :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이 낮아 병원설립 및 의료기자재 공급 등을 통하여 지방 저소득층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전력분야**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0년까지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시설을 재건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발전·송전부문에 대한 EDCF 지원타당성은 충분
- **도로, 관개시설분야** : 도로망 부족이 물류 및 수도발전 편익의 지방전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바, 도로분야는 성장기반 확충차원에서 지원타당성 큼. 관개시설 등 농업 인프라 개선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산업인 농업의 생산성 향상, 생산기술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정보통신분야** : 무선통신부문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급성장분야로서 우리나라의 IT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제협력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
- **KSP(지식공유사업) 지원전략** :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농업과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고 산업을 수출주도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인 바, 아래 분야에 대한 KSP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농업개발전략** : 금융지원이 열악하고 조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산물 정부수매가격의 현실화, 세 부담 경감, 금융지원 확대 등의 전략 보완 필요
- **중소기업 육성정책** : 영업허가제도 완화, 은행예금 인출 제약요인 완화, 기능인력 양성 지원 등 중소기업 창업 및 영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보완 필요
- **수출 가공지역 설치 지원** :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 지향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할 때, 수출 가공지역의 설치를 통해 수출산업의 진흥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전수 가능(예, 마산수출자유지역)
- **정부주도 시장경제체제 구축** : 시장경제체제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고속성장경험 전수 가능

## 다. 아제르바이잔

### (1) 개요

- 석유수출 및 유전·가스전 개발이 활발하여 국민소득 급증하고 있어 타이드 원조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 기반 미약, 막대한 자원 보유 등 우리나라와는 보완적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우리나라와 돈독한 경제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ODA 수원현황 : 최근 ODA 수원규모는 감소세를 보임
  - 일본 : 2002년 1억 4,180만 달러에서 2005년 830만 달러로 크게 감소
  - EDCF 지원실적은 없으며, 정부인증사업 등 지원 추진 중임

### 아제르바이잔의 ODA 수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양자간 (무상)	232.2 (98.5)	158.5 (80.2)	92.3 (82.5)	109.7 (99.6)
다자간 (무상)	104.9 (35.2)	131.7 (35.7)	57.5 (21.8)	84.0 (39.8)
합 계 (무상)	349.3 (140.7)	300.6 (122.3)	176.0 (129.2)	223.4 (169.2)

자료 : OECD DAC,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 2001-2005, 2007(총 수취액 기준)



## (2) 개발협력 추진방향

- 대외원조 수원방침 등을 감안할 때, 타이드 방식에 의한 지원이 타당해 보이며, 자원협력을 확대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무상원조는 IT, 제조업·농업 육성 및 각종 제도보완 등의 분야에서 타당성 조사, KSP 등의 형태로 가능할 전망이며, 빈곤축소 및 경제개발계획과 관련된 중점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검토
  - 교육 분야 :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대비하여 중·고등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IT를 접목한 교육시스템 지원 가능
  - 보건·의료분야 :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이 낮기 때문에 국민 복지증진 및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강화 차원에서 효과 기대
  -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분야 : 중앙아시아·카스피 해 지역의 석유, 가스, 공산품을 유럽(동서) 및 러시아(남북)로 운송하는 물류중심지로서 이 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 실정임
  - 공공서비스 개선분야 : 전자정부, 전자조달 등 정보통신과 접목된 공공 서비스 및 관세현대화 등 분야 지원 가능
- KSP 지원방안 : 산업 다각화에 따른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첨단 IT·운송 인프라산업을 육성중인 바, 아래 분야에 대한 KSP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효율적 재정정책 : 과도한 해외유동성 유입,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물가 불안, 통화가치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조세개혁, 조세행정의 효율화·투명화, 기타 재원조달 다변화 방안마련 필요
  -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금융정책 : 금융부문의 시장금융체제 구축이 미흡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개선, 투자자본·제2금융권 육성정책 등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첨단 IT·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 석유, 가스, 운송, 인프라 건설 등 기간·첨단 IT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 선정기준, 투자재원 조달·배분과정, 산업정책 영향 분석 등 지식공유가 도움이 클 전망
- **인적자원 개발** : 우리나라의 전문기술 교육시스템, 직업교육 등 좋은 사례 전파 기대

## 라. 투르크메니스탄

### (1) 개요

- 석유·가스자원 등이 풍부하나, 서방국과의 경제협력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경우 기대 이상의 외교·경제적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음
- 서방과의 경제협력 준비가 미비하므로 정부·관계기관 간 先 관계 구축이 필수적
- ODA 수원현황 : ODA 수원규모는 극히 미미하며, 2007년 5월 현재 EDCF 지원 실적 없음

### 투르크메니스탄의 ODA 수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양자간 (무상)	26.0 (15.3)	16.7 (9.7)	11.4 (9.7)	11.8 (11.8)
다자간 (무상)	5.7 (5.5)	6.7 (5.3)	7.2 (3.9)	5.3 (4.7)
합 계 (무상)	40.5 (23.4)	27.2 (18.7)	37.2 (33.3)	28.3 (31.8)
우즈베키스탄	189.4 (136.6)	194.4 (138.9)	245.6 (145.5)	172.3 (128.3)
아제르바이잔	349.3 (140.7)	300.6 (122.3)	176.0 (129.2)	223.4 (169.2)

자료 : OECD DAC,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Aid Recipients 2001-2005, 2007(총 수취액 기준)

## (2) 개발협력 추진방향

- 투르크메니스탄의 대외원조 수원방침 등을 감안할 때 타이드 방식의 지원이 타당하며, KSP 지원도 가능해 보임. 국민 기초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회 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
  - 교육 분야 : 구체적인 기술·고급인력 육성기관 설립 지원, 각종 교육기자재 보급, 인력양성계획 수립에 대한 KSP 등의 방법으로 지원 가능
  - 보건·의료분야 :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이 낮고 전염병·마약복용이 만연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병원 설립, 의료기자재 공급 등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이 가능해 보임
  -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분야 : 국민 기초 복지증진보다 우선 순위에서 뒤쳐지나 경제기반 조성 차원에서 가스 생산 및 수출, 기반시설 및 운송철도 현대화, 가스 파이프라인의 보수 등 절실
- KSP 지원방안
  - 거시경제 관리 :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개발연대 경제개발계획 수립과 정부의 시장경제 조정 경험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농업개발전략 : 2003년 '경제·정치·문화 발전전략 2020'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량이 정체 상태에 있음. 농업개혁을 위한 특수금융제도, 중장기 농가 소득정책, 농산물 가격의 현실화 등 경험 전수 가능

## IV. 결론 및 시사점

- 지정학적 중요성, 최근의 고성장, 풍부한 자원보유, 우리나라와의 보완적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중앙아시아·카스피 해 지역과의 경제협력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

우리나라	경제협력 내용	중아시아 국가
<p><b>&lt;강점&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경쟁력</li> <li>· 건설프로젝트 시행능력 우수</li> <li>· 경제개발 경험 풍부</li> </ul> <p><b>&lt;약점&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 부족</li> </ul>	<p><b>&lt;한국 수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재(자동차, 가전 등)</li> </ul> <p><b>&lt;한국 투자진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광업</li> <li>· 건설 : 주택건설, 자원개발</li> <li>· 금융</li> </ul> <p><b>&lt;한국 ODA 제공 등&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DA 제공</li> <li>· 지식공유사업</li> </ul> <p><b>&lt;한국 수입&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및 광물자원</li> </ul>	<p><b>&lt;약점&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기반 빈약</li> <li>· 건설경험 부족</li> <li>· 경제개발 경험 부족</li> </ul> <p><b>&lt;강점&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자원 풍부</li> <li>· 소비시장 확대</li> </ul>

- 다만, 국가별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정도에 따라 경제상황과 정부의 경제개발 방향이 달라 EDCF를 통한 경제협력방안도 이를 반영하여 차별화해야 할 것임
  - 카자흐스탄과 같은 고성장국은 유상차관 도입의지가 낮아 MDB와의 협조 용자, KSP 중심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이 아직 서방과의 경제협력 준비가 미비한 국가의 경우 유관기관 간 先 우호관계 구축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원협력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
- 한편, 이 지역 국가들은 고성장률에 비해 취약한 산업기반의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과거 급성장시의 통화·재정정책, 산업다각화정책, 농업·중소기업 육성정책, 인력육성정책 등 경제정책 경험이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작 성 : 오 은 상, [oes@koreaexim.go.kr](mailto:oes@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단신 1

## AfDB '제42차 연차총회' 주요 내용

### 1. 회의 개요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제42차 연차총회 및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제33차 연차총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7. 5. 16~5. 17 (2일간), 중국 상하이
  - 참석자 : 중국 원자바오 총리, 카포베르데 Pedro Pires 대통령, 마다가스카르 Marc Ravalomanana 대통령, 개발전문가, 사업가, 학계, 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 등 2,500여 명
- 본 회의에 앞서 3일간 심포지엄과 세미나 개최
  -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 및 아프리카-아시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사안 등에 대해 논의

### 2. 본 회의 주요 논의 내용

- 전략적 분야에 대한 투자 실시
  - AfDB 총재 Donald Kaberuka는 기자회견에서 MDG 달성 및 아프리카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수자원·위생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사업을 선별하여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AfDB는 다음의 회원국 사업을 지원하기로 각각 협정 체결

### AfDB Group 주요 지원 사업

(단위 : 백만 UA)

국 가	사 업	규 모
모 잠 비 크	Missingir 댐 건설	17
우 간 다	농촌 인프라 구축	30
레 소 토	교육사업	7
레 소 토	도로사업	2
잠 비 아	빈곤감축사업	20
잠 비 아	농촌 물, 공중위생 사업	15
말 리	가축사육사업	15
모 리 셔 스	경제개혁	30

\* 1 UA = 1 SDR = USD 1.52418

### AfDB Group 기타 지원 사업

(단위 : 백만 USD, 백만 JPY)

국 가	사 업	규 모
코트디부아르	조류독감 방지	USD 0.5
카 메 룬	조류독감 방지	USD 0.5
지 부 티	조류독감 방지	USD 0.5
상투메 프린시페	빈곤감축	USD 0.5
부르키나파소	빈곤감축	JPY 88.9

#### □ 최근 AfDB 재무상태 개선에 따른 역할 확대 기대

- AfDB, AfDF, NTF(Nigeria Trust Fund)로 구성된 AfDB Group의 2006년 이익은 372.5백만 달러를 기록(AfDB 291백만 달러)
  - Kaberuka 총재는 은행의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은행의 최상급 및 후순위 채권이 각각 AAA와 AA+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우수한 재무상태는 앞으로 차관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
- Kaberuka 총재는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는 민간분야에 의해 견인될 것이며, 이에 따른 은행의 역할은 투자환경을 향상시키는 촉매역할을 하는 동시에 은행의 개발목표에 부응하는 경제전반의 수요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힘



## □ 근래 경제지표에 나타난 고무적인 아프리카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성장의 요건

- 최근 아프리카 경제상황이 개선의 조짐을 보임에 따라 빈곤탈출 가능성이 높아짐
  - 현재 31개 국가가 인구증가율을 초과하는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가량이 5% 이상, 9개 국가가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2007년 아프리카의 성장률을 6.5%까지 전망
- 그러나 일부 국가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아프리카인들이 체제 취약성, 분쟁, 정책실패 등으로 경제성장이 정체, 수축, 혹은 인구증가율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 놓여 있음
  - 심지어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도 여전히 국내외 변수에 민감하여 5.5%의 실질 GDP 성장률조차도 빈곤감축 캠페인의 궁극적인 성공을 보장하기에는 이르다고 총회는 평가
- Kaberuka 총재는 아프리카의 지속적인 미래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의 보장이라고 강조

## □ 세계화 시대에 따라 아시아-아프리카 협력의 중요성 부각

- 개회 연설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화로 인해 여러 문제에 당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화는 아프리카에 큰 기회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발표
  - 이러한 노력에 있어 아프리카 대륙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국제사회는 부채탕감, 무역진흥,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대륙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힘. 중국은 이미 109억 위안 규모의 부채탕감을 이행한 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부채를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
- 이에 대하여 Donald Kaberuka 총재는 이번 연차회의의 개최지로서 상하이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고 밝히며 세계화의 흐름에 맞서 아시아-아프리카 간 남-남 협력이 중요성을 띠기 시작했음을 강조

### 3. 시사점 및 의의

- AfDB는 한동안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나 최근 은행 내 개혁 등을 통해 사업성과 및 수익 등이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차관 등의 지원여력이 확보되어 AfDB의 아프리카 내 활동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고부가가치 사업 선별을 통해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위생 등 전략적인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2015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UN의 MDG 달성 가능성 확대
- 이번 연차총회 개최국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개발지원 확대 필요성 대두**
  - AfDB Group이 경제협력을 위하여 아시아-아프리카 간 축매 및 유용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 만큼 우리나라는 AfDB와의 협조를 통해 아프리카 개발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 대두
  - 특히, 우리 정부가 2006년 3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8)’를 발표하면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증진에 나선 만큼 향후 아프리카 지역과의 협력 및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

자 료 : <http://www.afdb.org>

작 성 : 박 선 영, [spark@koreaexim.go.kr](mailto:spark@koreaexim.go.kr)

목차보기

8)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방문 시, 2008년까지 대 아프리카 개발원조의 3배 확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확대, 질병퇴치를 위한 의료·보건 분야 지원 확대, 교육지원을 통한 아프리카 인적자원개발 기여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추진하여 아프리카의 빈곤퇴치 등 인도적 분야의 협력과 경제·사회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UN의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세계 11위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발표.

## ODA 단신 2

#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국제 공동세미나 개최 - AfDB 2007년 상하이 연차총회 기념 -

## 1. 개최 배경

- 최근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가 확대되는 추세와 맞물려 동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적 고려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에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국의 개발원조 관련 기관들은 자국 내에서 얻은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공유하고자 2007년 AfDB의 상하이 연차총회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
  - AfDB, EDCE, JBIC, SEPA(State 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중국 환경문제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환경측면의 고려요인'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 개최

## 2. 국제세미나 개요 및 주요 내용

### 가. 국제세미나 개요 및 주요 의제

- 이번 국제세미나는 2007년 AfDB의 상하이 연차총회를 계기로 동북아 소재 3개 국제개발 관련 기관과 AfDB가 공동 주최하고, 약 50여명의 아프리카 소재 수원국 관계자 및 ADB 등 다자기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7년 5월 14일 상하이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

□ 주요 의제

- 동아시아 3개국의 개발과 환경정책에 대한 시사점 발표
-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환경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원조기관, 수원국 정부 등)간 토론

나. 주요 토론내용

□ 제1주제 : 일본 공해통제정책의 경제적 의미

- 발표자 : Mr. Kazuhiro Ueta, 교토대 환경·경제대학원 교수
- 일본의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상관성 연구결과 설명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
  - 메이지유신 이래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하여 중금속 중독의 폐해(미나마타병, 이타이이타이병 등)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60년대 중반부터 환경보호 정책 강화
  -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환경과 성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성장(Green Growth)기반 구축
  - 개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환경적 고려요인에 대한 배려 필요

□ 제2주제 : 재정수단을 통한 환경보호 시장메커니즘 구축

- 발표자 : Mr. Ma Zhong, 북경 인민대 환경·자원학과 교수
- 조세우대제도, 보조금, 격려금 지급 등과 같은 정부의 재정적 수단들을 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 구축 가능성에 대해 설명
  - 중국의 경우, 정부의 재정적 수단을 잘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통한 주민들과 기업들의 경제적 복지수준 향상과 함께 환경의 질 개선 가능 설명
  - 이 같은 재정수단은 인센티브,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지출은 물론이고 환경세, 환경 부담금 등을 총괄하는 것으로 적정 공공 환경서비스 제공, 환경보호에 대한 동기부여, 환경에 대한 사회적 자원의 적정 배분 등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제3주제 :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공감 구축

○ 발표자 :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담당 팀장

○ 한국의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정책 및 새만금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의 교훈 등 설명

- 환경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경제개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성장 가능
- 개발 사업에 있어 환경적 고려 요소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며,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정교한 타당성검토 등이 필요

### 3. 시사점 및 의의

□ 이번 공동세미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환경 측면의 고려가 동 지역의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작용

- 특히, 동북아 3국의 관련 사례발표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냄
- 중장기적으로 원조기관 간 환경관련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중요성 공감

□ 한편, 우리나라 EDCF 지원 시에도 수원국에게 환경관련 관심 촉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여기관 간 공동노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임

-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기 실시하고 있는 환경관련 검토내용을 수원국에 전달함으로써 수원국 정부의 관심 촉구 필요

ODA 단신 3

## 세계은행이 발간한 GDF 2007의 주요 내용

### I. GDF 소개

- 세계은행은 매년 봄 GDF(Global Development Finance)를 발간하여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이동의 최신 동향과 전망, 중요정책을 진단·분석하여 제시
- 2007년 5월 29일 발간된 GDF는 저소득 국가의 차입(채권 및 대출)시장 접근성 개선과 개발도상국 기업금융의 세계화가 신흥시장의 미래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해 점점 중요해진다고 강조

### II. GDF 주요 내용

#### 1. 최근 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특징

##### 가. 개도국으로의 민간자본이동 최고치 경신

- 2006년 개도국으로의 순 민간자본 이동은 전년 대비 954억 달러 증가한 6,46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2005년 34%에서 2006년 17%로 감소
-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증가(432억 달러),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지분투자(Portfolio Equity) 증가(223억 달러) 등에 기인

##### 나. 지분방식(equity)이 자본이동 확대 주도

- 지분방식(equity)의 자본이동이 차입방식(debt)의 자본이동보다 더욱 증가함
  - 2006년 지분방식(FDI 및 Portfolio Equity)의 자본이동은 4,188억 달러로 전체 자본이동의 약 3/4을 차지하며 2004년(약 2/3) 보다 증가
    - 특히, 2006년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초국가적 M&A에 힘입어 3,247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 1.2조 달러의 약 1/4을 차지
  - 민간 차입방식의 자본이동 대비 지분방식 자본이동 비중은 2004년 1.66에서, 2005년 1.70, 2006년 1.84로 지속적으로 커짐

#### 다. 저소득 국가의 차입시장(debt market) 접근성 개선

- 일부 저소득 국가의 현지화 표시 부채에 외국인 투자 및 관심 증가
  -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비거주자 수요가 상당히 증가함. 특히, 잠비아의 경우 비거주자 보유 공채 비중은 2004년 경미한 수준에서 2006년 5월 20%까지 증가
  - 최근 수년간 1차 상품 가격의 급등에 따른 1차 상품 수출국의 환율 강세, 저소득국의 경제·재정 상태 개선에 따른 투자자의 리스크 인식 개선 등으로 저소득국 현지화 표시 부채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 한편, 국외 차입시장에의 접근이 제약된 저소득 국가에게는 국내 차입시장이 공공 및 기업 금융 조달처로 중요

#### 라. 개도국 기업금융의 세계화

- 정부의 자본통제 자유화, 신흥기업 주식으로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수익증대 추구로 2002년 이래 개도국 기업금융의 세계화 가속
  - 자금조달의 다양화, 장기차입, 리스크관리 개선 등의 목적으로 국제자본 시장으로 진입하는 개도국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주로 민간부문(Private sector)이 주도



- 2006년도 개도국에 대한 지분투자는 2002년의 15배 수준인 941억 달러를 기록
  - 중국공상은행(121억 달러), 중국은행(89억 달러) 등의 기업공개로 개도국에 대한 지분 투자의 중국 비중은 30%에서 35%로 증가

## 2. 공적개발원조 동향

### 가. 진전 없는 원조확대 약속

- 2005년 1,068억 달러에 이르던 DAC 공적개발원조(ODA)는 2006년 1,039억 달러로 감소
  - 2002년 UN Monterrey 회의 시 국제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조의 실질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선진국들은 공적개발원조를 UN의 목표치(GNP의 0.7%)까지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촉구됨
  - 또한, 2015년까지 MDG를 충족하기 어려운 유일한 대륙인 아프리카에서의 원조노력 제고 중요성을 인정, 2005년 Gleneagles에서 G-8 국가 등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개발원조를 2010년까지 2004년의 두 배가 넘는 연평균 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약속함
  - DAC 회원국의 ODA 순지출은 2005년 전년대비 274억 달러 증가하다가 2006년 29억 달러 감소하여 국제적인 원조확대 약속 이행이 불확실해짐
    - DAC 원조 감소는 이라크, 나이지리아에 대한 채무탕감액이 2005년 194억 달러에서 2006년 141억 달러로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

### 나. 분쟁국가에 대한 원조 증가

- 지난 수년간 분쟁중이거나 분쟁에서 회복중인 국가에 대한 원조 증가

- 양자간 ODA 지출액 중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앞 원조비중이 2003년 8%에서 2005년 17.5%로 증가하였으며 수단과 콩고 앞 원조(4.5%) 포함 시 2005년 4개국 앞 원조는 22%를 차지
- 비상 및 재난구호 원조는 1990년대 ODA(채무탕감 제외)의 4% 미만에서 2006년 9% 수준으로 증가

#### 다. 신흥 원조국의 부상

- DAC 22개 회원국 이외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이 개발원조 수혜국이면서 공여국으로 부상
  - 세계은행이 DAC, UNDP 등과 협력하여 신흥원조 9개국(BRICs,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3개국(칠레, 말레이시아, 태국)만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3개국의 경우 개발원조 대부분이 주로 기술지원 형태로 지역권내 국가에 제공됨
- 한국 등, DAC 비회원국의 원조확대 주도
  - DAC 앞으로 원조활동을 보고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ODA 순지출은 1995~2001년 연평균 10억 달러에서 2005년 42억 달러로 증가
    - 아랍국의 ODA는 2002~2003년 연평균 27억 달러에서 2005년 17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비아랍국의 ODA는 5억 달러에서 25억 달러로 증가한 바, 한국(7.5억 달러), 터키(6억 달러) 등이 증가를 주도함
  - DAC 비회원국의 ODA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DAC 회원국의 증가율보다는 낮음
    - 2002년 DAC 비회원국 ODA는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ODA의 5.5%(32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 4%(42억 달러)로 비중이 줄어들음

### III. 시사점 및 의의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확대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원조공여국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2000년 125억 달러에서 2005년 32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증가의 상당부분이 채무탕감에 기인하였으며, 채무탕감을 제외하면 동 지역은 2005년 전체 ODA의 35%를 원조 받아 1990~1997년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0년까지 500억 달러 지원약속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조국들은 남은 기간 동안 원조 규모를 연평균 16%씩 증가시켜야 함
  -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원조확대 노력이 우리나라의 ODA 자원 배분 전략 수립 시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신흥 원조공여국의 부상으로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원조공여국간 원조 조화가 필요
- 중국 등 신흥 원조국의 출현으로 원조를 최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가장 효과적인 곳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조국간 원조정책 조율 강화와 원조흐름의 모니터링 개선이 필요

자 료 : [www.worldbank.org/gdf2007](http://www.worldbank.org/gdf2007)

작 성 : 박 봉 균, [pbklll@koreaexim.go.kr](mailto:pbklll@koreaexim.go.kr)

목차보기

ODA 자료 1

## 세계은행 및 OECD의 2007년도 국가분류 현황

### 1.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 2007년 7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2006년 1인당 GNI를 반영하여 국가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2007년도 국가분류 현황을 발표
  - 동 분류는 세계은행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Operational lending categories)'로서 '분석목적을 위한 소득그룹별 국가분류 (Analytical classifications)'<sup>9)</sup>와는 구분됨
  - 세계은행은 변경된 국가분류 기준을 2007년 7월 1일부터 유·무상원조의 지원조건 결정에 적용키로 함

#### 세계은행의 국가분류기준 변경내용

(단위 : USD)

카테고리	지원조건	2006년	2007년
		2005년 1인당 GNI 기준	2006년 1인당 GNI 기준
I	Civil Works Preference <sup>주1)</sup>	875 이하	905 이하
II	IDA Eligibility & 20-year IBRD Terms <sup>주2)</sup>	876~1,675	906~1,735
III	17-year IBRD Terms	1,676~3,465	1,736~3,595
IV	15-year IBRD Terms	3,466~6,055	3,596~6,275
V	IBRD Graduation	6,055 초과	6,275 초과

- 주 : 1.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수행되는 토목공사(civil works)의 입찰자 평가에 있어 국내계약자(local contractor)가 토목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적격계약자에게 특혜(preference)를 줄 수 있음
2. IDA의 유·무상 원조와 IBRD의 20년 만기 변동금리차관을 받을 수 있음

9) 세계은행은 분석목적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을 1인당 GNI를 기준으로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LICs): 2006년 1인당 GNI USD905 이하], 하위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LMICs): USD906~USD3,595], 상위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UMICs): USD3,596~USD11,115],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ies(HICs): USD11,115 초과] 등 4개 소득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용 중

- 2007년도 국가분류기준 변경으로 소속 카테고리가 바뀐 나라는 총 13개국  
⇒ 세계은행의 전체 국가분류 현황은 붙임 참조

### 세계은행의 국가분류 변경내역

국 가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탄	I	II	1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우크라이나	II	III	4개국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불가리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III	IV	5개국
리비아, 적도기니, 칠레	IV	V	3개국

## 2. OECD의 국가분류

- OECD는 2007년 7월 10일 ‘공적수출신용협약’ 제11조 a)항 및 제33조 a)항에 의거, 상기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근거로 2007년도 국가분류 (Country classification)를 발표
- 새로 발표된 OECD 국가분류는 올해 7월 24일부터 적용됨

### 세계은행 및 OECD의 국가분류체계 비교

세계은행		OECD <sup>주)</sup>	
1인당 GNI (USD)	카테고리	타이드 원조	카테고리
905 이하	I	적격	II
906~1,735	II		
1,736~3,595	III		
3,596~6,275	IV	부적격	I
6,275 초과	V		

주 : OECD는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그대로 활용하지만, 특정 국가의 세계은행 카테고리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카테고리를 즉시 반영하지 않고 변경된 카테고리가 2년 연속 유지되는 경우에만 반영함

- 단, 벨로루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Soft Ban 대상 국가는 1인당 GNI가 3년 연속 타이드 원조 수혜 적격기준(세계은행 카테고리 III)을 초과한다면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OECD의 국가분류는 세계은행의 국가분류를 원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구속성 원조(Tied aid)의 수혜 적격여부 판정과 수출신용의 지원조건 (최장상환기간) 결정에 사용됨
  - 구속성 원조 수혜 적격성 판정을 위한 국가분류
    - 적격국가 : 세계은행으로부터 17년 만기조건의 차관을 수혜받을 수 있는 국가 (즉, 세계은행 카테고리 I, II, III에 속하는 국가) → 현재 114개국
    - 부적격국가 : 그 이외의 국가 → 현재 96개국
  - 수출신용의 지원조건 결정을 위한 국가분류
    - OECD 카테고리 I : 세계은행 카테고리 V에 속하는 국가(IBRD 졸업국)로 최장상환기간은 5년 → 현재 75개국
    - OECD 카테고리 II : 세계은행 카테고리 V이외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국가로 최장상환기간은 10년 → 현재 135개국
- 2007년도 OECD의 국가분류 결과,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신규 확정된 나라는 1개국이며,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국가는 2개국임
  - 러시아는 3년 연속 세계은행 카테고리 IV로 분류되어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루마니아는 2년 연속, 불가리아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카테고리 IV로 분류되었으므로 앞으로 각각 1년, 2년 동안 카테고리 IV를 유지할 경우 Soft Ban 대상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그러나, Soft Ban에서 벗어나더라도 세계은행 카테고리 IV를 유지하는 동안은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에 해당
  - 세르비아-몬테네그로는 2006년 중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분리·독립되었으나 양국 모두 세계은행 카테고리 IV로 분류되어 앞으로 1년 더 카테고리 IV를 유지할 경우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 2개국은 처음으로 세계은행 카테고리 IV로 분류되어 앞으로 1년 더 카테고리 IV를 유지할 경우 타이드 원조 부적격국으로 확정됨

붙임 : 세계은행의 2007년도 국가분류 현황

자 료 : OECD, 'Country Classification 2007'[TAD/PG(2007)16], 2007.7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붙임)

### 세계은행의 2007년도 국가분류 현황

카테고리	해당국가 (국가수)
I	가나, <b>감비아</b> , <b>기니</b> , <b>기니비사우</b> , 나이지리아, <b>네팔</b> , <b>니제르</b> , <b>동티모르</b> , <b>라오스</b> , <b>라이베리아</b> , <b>르완다</b> , <b>마다가스카르</b> , <b>말라위</b> , <b>말리</b> , <b>모리타니</b> , <b>모잠비크</b> , <b>몽골</b> , <b>미얀마</b> , <b>방글라데시</b> , <b>베냉</b> , <b>베트남</b> , <b>부룬디</b> , <b>부르키나파소</b> , <b>사오토</b> , <b>메프린시페</b> , <b>세네갈</b> , <b>소말리아</b> , <b>솔로몬군도</b> , <b>수단</b> , <b>시에라리온</b> , <b>아이티</b> , <b>아프가니스탄</b> , <b>에리트리아</b> , <b>예멘</b> , <b>우간다</b> , <b>우즈베키스탄</b> , <b>이디오피아</b> , <b>인도</b> , <b>잠비아</b> , <b>중앙아프리카공화국</b> , <b>짐바브웨</b> , <b>차드</b> , <b>캄보디아</b> , <b>케냐</b> , <b>코모로</b> , <b>코트디부아르</b> , <b>콩고민주공화국</b> , <b>키르기스</b> , <b>타지키스탄</b> , <b>탄자니아</b> , <b>토고</b> , <b>파키스탄</b> , <b>파푸아뉴기니</b> (52개국)
II	가이아나, <b>그루지야</b> , <b>니카라과</b> , <b>레소토</b> , <b>몰도바</b> , <b>바누아투</b> , <b>볼리비아</b> , <b>부탄*</b> , <b>스리랑카</b> , <b>시리아</b> , <b>온두라스</b> , <b>이라크</b> , <b>이집트</b> , <b>인도네시아</b> , <b>지부티</b> , <b>카메룬</b> , <b>콩고인민공화국</b> , <b>키리바시</b> , <b>투르크메니스탄</b> , <b>파라과이</b> , <b>필리핀</b> (21개국)
III	<b>과테말라</b> , <b>까보베르데</b> , <b>나미비아</b> , <b>도미니카공화국</b> , <b>마셜군도</b> , <b>마이크로네시아연방</b> , <b>마케도니아</b> , <b>모로코</b> , <b>몰디브</b> , <b>벨로루시</b> , <b>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 , <b>사모아</b> , <b>수리남</b> , <b>스와질랜드</b> , <b>아르메니아*</b> , <b>아제르바이잔*</b> , <b>알바니아</b> , <b>알제리</b> , <b>앙골라*</b> , <b>에콰도르</b> , <b>엘살바도르</b> , <b>요르단</b> , <b>우크라이나*</b> , <b>이란</b> , <b>자메이카</b> , <b>중국</b> , <b>콜롬비아</b> , <b>태국</b> , <b>통가</b> , <b>튀니지</b> , <b>페루</b> , <b>피지</b> (32개국)
IV	<b>가봉</b> , <b>그레나다</b> , <b>남아프리카공화국</b> , <b>도미니카연방</b> , <b>러시아연방</b> , <b>루마니아</b> , <b>레바논</b> , <b>말레이시아</b> , <b>모리셔스</b> , <b>몬테네그로*</b> , <b>베네주엘라</b> , <b>벨리즈</b> , <b>보츠와나</b> , <b>불가리아*</b> , <b>브라질*</b> , <b>세르비아*</b> , <b>세인트루시아</b> , <b>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b> , <b>아르헨티나</b> , <b>우루과이</b> , <b>카자흐스탄*</b> , <b>코스타리카</b> , <b>터키</b> , <b>파나마</b> (24개국)
V	<b>대한민국</b> , <b>리비아*</b> , <b>멕시코</b> , <b>세이셸</b> , <b>세인트키츠 네비스</b> , <b>슬로바키아</b> , <b>앤티가바부다</b> , <b>적도기니*</b> , <b>칠레*</b> , <b>크로아티아</b> , <b>트리니다드토바고</b> , <b>팔라우</b> , <b>폴란드</b> (13개국)

주 : **■** 표시는 최빈국(LDC) (총 50개 최빈국 중 세계은행의 지원대상국은 49개국)이고, \* 표시는 2007년 중 카테고리가 1단계 상향조정된 국가 (총 13개국)

목차보기

ODA 자료 2

## 아시아개발은행의 2006년도 업무실적

### 1.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개요

- ADB(Asian Development Bank)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1966년)된 개발금융기관
  - 2006년 말 현재 66개 회원국(역내 47개국, 역외 1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설립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2007년 2월 그루지야가 67번째 회원으로 가입)
- 자금은 일반재원(OCR : Ordinary Capital Resources)과 특별기금(SFR : Special Funds Resources)으로 조성되며, 각 재원은 엄격히 분리되어 운용
  - OCR은 역내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통상 업무수행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자본금, 차입금, 준비금(누적이익)으로 구성
  - SFR은 대부분 양허적(Concessional) 조건의 유상차관, 기술협력을 통한 지원 등에 사용되는 재원으로 아시아개발기금(ADF), 기술지원특별기금(TASF), 일본특별기금(JSF) 등으로 구성
- 자금지원은 유상차관, 무상증여, 기술협력, 신용보강, 지분투자, 협조융자 등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나 유상차관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며, 유상차관은 OCR 및 특별기금의 ADF 재원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짐

### 2. 2006년도 주요 업무실적

- 유상차관의 지원 실적이 80억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용보강(6.5억 달러), 무상증여(5.4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 유상차관은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ADB 지원업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유상차관의 증가 요인은 OCR에 의한 승인액의 증가(유상차관 증가액의 80%)에 기인
  - OCR은 ADB 유상차관의 주요재원으로, 2006년 유상차관 승인액의 77%를 차지하였으며, 과거 누적액 기준으로도 73%를 차지
- 무상증여는 전년대비 53%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별기금인 ADF를 주요재원으로 활용
  - 아시아 지역의 자연재해에 따른 예외적인 사건발생으로 2005년에 특별기금(Asian Tsunami Fund 및 Pakistan Earthquake Fund)에 의한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이러한 일시적 지원효과 감소('05 : 6.5억 달러 → '06 : 0.3억 달러)
- 또한, 2006년에는 총 5건 5.3억 달러의 협조융자방식에 의한 신디케이션이 승인됨

### ADB의 자금종류별 승인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협조융자		협조융자
유상차관	5,791.1	30.5	7,965.5	569.2
무상증여	1,149.9	223.4	538.4	166.1
기술협력	198.6	78.9	241.6	92.7
신용보강	68.4	68.4	654.8	654.8
보증	68.4	68.4	124.8	124.8
신디케이션	-	-	530.0	530.0
지분투자	211.5	-	260.5	-
MFF <sup>10)</sup>	1,520.0	-	3,810.0	-

10) MFF(Multi-tranche Financing Facility) : 유사한 성격의 여러 개발프로젝트에 대해 가능한 지원방법을 사전에 정하여 포괄 지원약정을 맺은 후, 순차적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및 자금지출이 이루어지는 금융제도로 2005년에 도입

- 유상차관의 경우 금융 분야에 대한 지원이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에너지 분야가 20%로 그 뒤를 이었으며, 무상증여는 농업 및 천연자원에 대한 비중이 2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음
- 유상차관 및 무상증여 모두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sustainable economic growth)을 주요테마로 지원이 이루어짐

### ADB의 지역별 승인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유상차관	무상증여	기술협력	신용보강	지분투자	MFF
중·서부아시아	1,858.7	196.7	24.2	145.0	5.0	2,210.0
남 아 시 아	2,144.5	164.9	47.3	300.0	72.6	1,550
동 아 시 아	1,618.2	1.5	16.0	75.0	55.0	50.0
태 평 양	53.0	46.7	11.1	-	-	-
동 남 아 시 아	2,226.1	103.6	40.8	134.8	0.2	-
기 타	65.0	25.0	102.2	-	127.7	-
합 계	7,965.5	538.4	241.6	654.8	260.5	3,810.0

- 인도(16.9억 달러), 중국(15.7억 달러), 파키스탄(15.4억 달러)에 대한 지원이 유상차관의 60%를 차지하였고, 무상증여는 아프가니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 중국은 ADB와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협력을 점차 강화하여 규모면에서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ADB의 출자국이 됨과 동시에 2005~2006년 동안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음
  - ADB는 2003년 이후 인프라, 농업·천연자원, 도시개발, 환경보호의 4개 분야를 중국에 대한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자 료 : 1. 2006 ADB Annual Report  
2. <http://www.adb.org/>

작 성 : 김 태 범, [ktb@koreaexim.go.kr](mailto:ktb@koreaexim.go.kr)

목차보기

EDCF 소식

2007년 2/4분기 EDCF 소식

1. 2007년 2/4분기 중 주요 사업 개요

□ 세네갈 정부행정망 구축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세네갈 정부 (국가정보처)
- 총 사업비용 : 32.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5.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전국 주요 정부부처 사무실에 무선 정부행정망 및 LAN 구축, 수도 다카르에 LED Display 설치, 운영·유지보수 및 교육훈련 제공 등
- 사업 개요
  - IT 부문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전략상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세네갈 정부가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요청
  - 행정제도의 개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 등을 통해 정부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행정비용 및 시간 절감 등 기대

□ 베트남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립사업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베트남 정부 (투아티엔훤성 인민위원회)
- 총 사업비용 : 38.6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0.9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투아티엔훤성 종합병원 건설 및 의료기자재 구매, 교육훈련 등
- 사업 개요
  - '2006~2010년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초 의료서비스 및 고품질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 보건의료 분야는 국제사회에서 MDG의 핵심적인 개발목표로 지원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원조 노력에도 공조할 것으로 예상

## □ 캄보디아 3번국도 개보수사업(2차)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캄보디아 정부 (공공사업교통부)
- 총 사업비용 : 41.5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36.9백만 달러
- 사업범위 : 3번국도 중 캄포트~프놈펜(137.5km)간 도로 개보수, 구조물 설치 등
- 사업개요
  - 도로개보수사업 1차(트라팡로포~캄포트)에 이어 연장구간에 대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기간도로의 개보수 사업임
  - 캄보디아 물류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3번국도의 개보수를 통해 남부지역의 산업개발, 관광산업 육성 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빈곤감축 등 도모

## □ 몽골 긴급정보망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몽골 정부 (법무내무부)
- 총 사업비용 : 16.9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3.5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치안, 재난, 구급 업무를 통합하는 긴급정보망 구축을 위한 통합지령센터 신축, 신고접수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사업개요
  -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치안·재난·구급업무를 자동화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몽골정부가 2003년 지원 요청
  - 몽골에 최초의 현대적인 통합지령센터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범죄억제, 신속한 재난 대처, 치안·재난·구급 업무수행능력 및 효율성 제고 기대

□ 몽골 울란바토르 지능형교통망 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몽골 정부 (울란바토르 시 정부)
- 총 사업비용 : 17.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12.8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지능형교통망 시스템 구축 (교통관제센터, CCTV, 교통신호기 등 설치), 교육훈련 등
- 사업개요
  - 몽골의 남북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울란바토르 시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몽골 정부가 2003년 지원 요청
  - 교통통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차량수용 능력 및 운행속도 개선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울란바토르 시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스리랑카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2차) 보충용자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스리랑카 정부 (국영상하수도공사)
- 총 보충 사업비용 : 10.2백만 달러 (총 사업비용 : 33.2백만 달러)
- 보충 지원요청금액 : 6.4백만 달러 (총 지원요청금액 : 21.2백만 달러)
- 사업범위 : 골 광역시 지역에 392km의 상수도 분배관 구매 및 매설
- 사업개요
  - 2004년 8월 골 광역시 상수도 개발사업(2차)에 대한 정부지원방침 결정 이후 지진해일 피해로 인한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용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최초 사업비용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가 보충용자를 신청
  - 아울러, 최초 추정 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차량 구입비 및 교육훈련비도 추가



## □ 방글라데시 인터넷 정보망 확충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정부 (방글라데시 통신공사)
- 총 사업비용 : 46.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5.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인터넷 통신망 개선, 전송망·가입자망 구축, 부대시설 구매, 교육훈련 등
- 사업 개요
  - 기존의 전화통신망을 확충·개선하여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송망과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방글라데시 주요 6개 도시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5년 정부지원방침 결정
  - 정보통신 인프라개발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중기개발계획 하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로, 기존의 인터넷 수요 충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양국 간 협력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 □ 방글라데시 재난구조선 구매사업 (차관공여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방글라데시 정부 (방글라데시 내륙수운청)
- 총 사업비용 : 37.6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6.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바지크레인(barge crane), 예인선(tug boat), 탐사·잠수장비 구매, 교육훈련 등
- 사업 개요
  - 화물 및 승객운송을 부담하는 내륙수운은 방글라데시의 중요한 운송수단이나, 침몰선박의 인양 및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장비가 노후하여 내륙수로의 피해가 심각하자 내륙수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5년 방글라데시 정부가 지원 요청
  - 방글라데시 정부의 내륙수운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침몰선박의 인양 및 재난구조 활동을 통해 내륙수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적 편익 증대 기대

#### □ 필리핀 남부마닐라 통근철도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필리핀 철도청 (필리핀 철도청)
- 총 사업비용 : 64.7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EDCF 35.0백만 달러, 수출신용 15.4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철도차량제공, 궤도보수 및 토목공사, 신호체계 보수 등
- 사업 개요
  - EDCF 차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신용이 결합된 혼합신용(Mixed Credit)방식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남부마닐라 지역 주민에게 통근철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2004년 차관공여계약, 2007년 5월 구매계약 체결
  - 철도사업은 필리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특히 한·필리핀 정상회담 시 논의된 본 건 지원을 통하여 양국 간의 경제·외교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 중국 4개성 벼농사 기계화 시범단지 건설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중국수출입은행 (농업부 대외경제협력센터)
- 총 사업비용 : 50.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5.0백만 달러
- 사업 범위 : 4개성(안휘성, 호남성, 운남성, 호북성) 벼농사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 사업 개요
  - 중국 중서부 4개성을 대상으로 벼농사 기계화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영농 기계화 촉진,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안휘성 및 호남성은 각각 2005년, 2006년, 운남성은 2007년 4월 구매계약 체결
  - 본 사업은 중국의 농업부문 기계화를 촉진하고 벼농사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농업부문 소득 증대, 농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한·중 양국 간의 농업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몽골 초이르~사인샨드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매계약 체결)

- 차주 (사업실시기관) : 몽골 정부 (도로청)
- 총 사업비용 : 30.0백만 달러
- 지원요청금액 : 23.9백만 달러
- 사업범위 : 초이르~사인샨드 간 아스팔트 포장도로 건설과 도로주변 방풍·방사용 식수(植樹)
- 사업개요
  - 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도로망을 개선하고 몽골의 무역 및 투자증대와 경제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ADB와 협조융자 방식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2005년 차관공여계약, 2007년 4월 구매계약 체결
  - 몽골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EDCF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몽골 간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2. EDCF 업무통계 요약 (2007. 6. 30 현재)

□ 연도별 승인 및 집행 현황

- 최근 4년간 승인, 집행,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승인*	집행	기금조성(누계)
2004년	2,431	1,555	16,505
2005년	2,960	1,643	17,586
2006년	3,512	1,361	19,238
2007년(6월말)	1,437	470	19,449

\* 2007. 6. 29자 환율 (₩935.86/U\$) 적용

○ 승인 및 집행 누계

- 승인 : 41개국 157개 사업, 2조8,018억 원 ('07 : 4개국 5개 사업, 1,437억 원)
- 집행 : 37개국 117개 사업, 1조6,649억 원 ('07 : 16개국 19개 사업, 470억 원)

□ 지역별, 부문별 승인 및 집행누계 (1987~2007. 6)

○ 지역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지 역	승인		집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시 아	18,774	67.0%	11,365	68.3%
유 럽	3,199	11.4%	2,347	14.1%
아 프 리 카	2,848	10.2%	1,676	10.1%
중 남 미	2,103	7.5%	705	4.2%
중 동	944	3.4%	474	2.8%
대 양 주	150	0.5%	82	0.5%
<b>합 계</b>	<b>28,018</b>	<b>100.0%</b>	<b>16,649</b>	<b>100.0%</b>

○ 분야별 승인 및 집행누계

(단위 : 억 원)

분 야	승인		집행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교 통	7,918	28.3%	4,551	27.3%
통 신	3,766	13.4%	3,162	19.0%
에 너 지	2,461	8.8%	2,157	13.0%
수자원, 위생	4,073	14.5%	1,815	10.9%
환 경 보 호	216	0.8%	148	0.9%
보 건	2,826	10.1%	1,720	10.3%
교 육	2,482	8.9%	1,274	7.7%
공 공 행 정	2,310	8.2%	611	3.7%
농 수 입	1,038	3.7%	526	3.2%
기 타	928	3.3%	684	4.1%
<b>합 계</b>	<b>28,018</b>	<b>100.0%</b>	<b>16,649</b>	<b>100.0%</b>

작 성 : 김 태 범, ktb@koreaexim.go.kr

목차보기